

축구

6

2019년 9월 11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10월 15일 北 원정인데 질의서에 답도 없는 북한

월드컵 2차전 3차전 준비 시작 못해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시작한 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은 다음달 다시 모인다.

파울루 벤투 감독(50·포르투갈)이 이끄는 대표팀은 10월 10일 스리랑카와 홈경기로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H조 2차전을 치르고, 15일에는 북한과의 원정경기로 3차전을 갖는다. 북한전은 평양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수는 남아있다.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대한축구협회(이하 KFA)가 최근 보낸 질의서에 북한축구협회가 아직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아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KFA는 지난달 말 아시아축구연맹(이하 AFC)의 공식 채널을 통해 북한축구협회에 10월 15일 경기와 관련해 몇 가지 질의서를 보냈다. 하지만 여전히 답변이 도착하지 않았다. KFA 관계자는 10일 "AFC 관계자와 북한축구협회에 동시에 이동방법, 숙소, 취재진 관련 등 몇 가지 질의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며 "조만간에 다시 질의서를 공식 채널로 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식 채널은 AFC가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출전하는 각 나라 협회에 한 개씩 할당된 이메일 계정을 말한다.

KFA 입장에서 북한 원정은 준비할 게 많다. 북한축구협회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도착하면 선수단의 방문과 관련해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북한축구협회의 직접적인 접촉을 위해서는 통일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KFA는 일을 서두르고 있지만 북한축구협회의 반응이 없어 본격적인 원정 준비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최홍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U-22 대표팀 제자들에게 입이 마르게 강조한 한가지

김학범의 축구철학 '3초의 법칙'



김학범 감독(오른쪽)이 이끄는 22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일주일 간의 훈련을 마치고 10일 해산했다. 시리아전 취소와 태풍 북상 등 우여곡절 속에서 김 감독은 '3초의 법칙'을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주입시키며 나름의 성과를 올렸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3초에 불과한 패스 하나가 경기 흐름을 바꿔
볼을 전방으로 빠르게 전개하는 훈련에 집중
'3초의 법칙'을 습관처럼 익혀야 실전 활용" 강조**

"3초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2020도쿄올림픽을 바라보는 김학범 감독(59)이 입버릇처럼 반복하는 이야기다. 3초는 눈 한 번 깜짝하면 흘러가는 짧은 시간이지만 축구에서는 수많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22세 이하(U-22)축구대표팀은 10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해산해 각자 소속 팀으로 복귀했다. 어린 태극전사들이 모처럼 만난 건 2일 제주 서귀포. 이곳에서 6일과 9일 시리아와 두 차례 평가전이 계획돼 있었다. 선수들의 실전 감각을 우려한 김 감독이 고대해온 스파링 매치 열이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변수에 발목 잡혔다. 3일 입국 예정이던 시리아 선수단이 현지에서 여권을 제때 갱신하지 못해 원정길에 오를 수 없었다. 불운은 또 있었다. 태풍 '링링'의 영향권에 접어들어 서귀포에서 정상 훈련이 불가능했다. 김 감독은 코칭스태프와 회의를 갖고 이를 만에 짐을 꾸려 선수단을 파주NFC로 이동시켰다. 시리아전이 인전대, FC안양과의 연습경기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훈련 스케줄이 계속 바뀌는 등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연습게임에서 경기력이 만족스럽지 않다 "시리아전을 했다면 망신만 당할 뻔 했다"고 제자들을 독려한 김 감독이 파주 훈련캠프에서 즐기게 강조한 부분이 '3초의 법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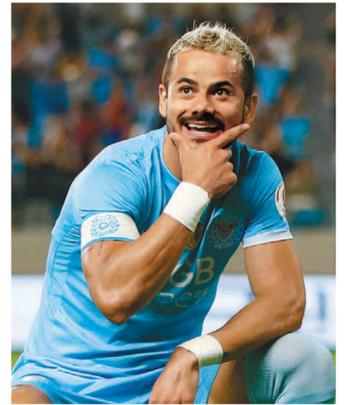
발을 떠난 볼이 지면에서 움직이고 공중에 머무는, 길어야 3초에 불과한 패스 하나로 경기 흐름이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다.

김 감독은 3초면 공격 시 상대 수비라인이 재정비할 시간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수비 상황에서는 상대 공격수가 늘어나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본다. "무조건 위험 지역에서 볼을 많이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빠르게 벗어나되, 후방 패스·윙 패스를 지양해야 우리의 의도대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이에 따라 U-22대표팀은 소집 훈련 내내 볼을 전방으로 빠르게 전개시키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했다. 선수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볼을 흘려주면 김 감독은 호루라기를 불어 패턴 훈련에 제동을 걸었다.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정작 지켜지기는 어려운 '3초의 법칙'을 습관처럼 몸에 익혀야 실전에서 활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 선수들의 수준과 상황을 명확히 진단했다는 측면에서 9월 소집은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

U-22대표팀의 시선은 내년 1월 태국에서 개최될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본선으로 향한다. 올림픽 아시아 예선을 겸한 이 대회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3위권에 입성해야 도쿄로 향할 수 있다. 26일 예정된 조추첨에서 한국은 북한, 일본, 이라크와 2번 포트에 속했다.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이 1번 포트, 거스 히딩크 감독(네덜란드)의 중국이 3번 포트로 한국축구를 직접 인연이 있는 팀들과 묶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U-22 김학범호는 향후에도 A매치 휴식기를 활용해 강화훈련을 가질 계획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대구FC 세징야

세징야, K리그 공격왕

키페스·슈팅·돌파 등 전부분 TOP

대구FC 세징야가 올 시즌 공격 부문 최고의 활약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0일 공개한 부가 데이터에 따르면, 세징야는 올 시즌 28라운드까지 키페스(특정 가능한 포지션의 동료에게 연결하는 패스)를 비롯해 페널티박스 안으로의 패스, 슈팅 및 유효 슈팅, 득점과정에 관련한 플레이(Playing in scoring attacks), 드리블 돌파 등 공격 전분야에서 선두권에 올랐다.

세징야는 총 74회로 키페스를 가장 많이 시도했다. 그 중 45회를 성공했다. 경기당 평균 1.6회의 성공(성공률 61%)으로 이 부문 1위다. 키페스는 상대 수비진을 따돌리고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이어서 그 가치가 높다. 울산 현대 김보경(경기당 1.4회·59%)과 전북 현대 로페즈(1.2회·56%)가 뒤를 이었다.

슈팅 및 유효슈팅에서도 돋보인다. 세징야는 올 시즌 가장 많은 슈팅(127회)을 했고, 그 중 50개가 골문으로 향했다. 기회가 오면 바로 때릴 수 있는 과감성과 함께 정확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최고 외국인 선수로 볼고 각축을 벌이는 울산 주니오(84회/39회)와 전북 로페즈(83회/35회)와도 차이가 많이 난다. 골대를 때린 슈팅도 4개로 로페즈와 함께 가장 많다.

세징야는 드리블 돌파도 198회 가장 많다. 성공 횟수는 122회. 그만큼 즐기게 공격에 가담했다는 방증이다. 페널티박스 안으로의 패스도 201개 중 116개를 성공했다. 시도는 전체 2위, 성공은 1위다.

이처럼 그라운드를 휘젓고 다니다보니 상대 수비수들의 집중 견제를 당할 수밖에 없다. 세징야는 상대로부터 총 96회의 반칙을 당해 피파올 횟수 1위다.

한편, 올 시즌 최다 패스는 2075회의 한국영(강원FC)이고, 볼 리커버리(공 소유권을 빼앗긴 후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탈취)에서는 홍정호(전북)가 총 261회로 1위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업소용 전기솥밥기계 NEW IH-디지털아궁이

36개월 전액 할부 시스템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문 쇄도



●●● 인덕션 밥 조리기 업계 최초 압력식 초벌 가능 탑재

인덕션 밥 조리기 전문업체 (주)가족에 에프에스가 세련된 디자인과 소비자 중심의 설계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2019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를 출시했다. "디지털 아궁이" 하면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먼저 알아봐 주시는 기계로 밥맛부터 품질, AS까지 뭐하나 빠짐없는 기계로 정평이 나왔다. 기존 가스 솥밥 기계보다 공간 차지가 덜하고 유해가스와 열기가 없어 주방, 홀을 비롯한 어디서든 전기가 있는 곳이라면 설치가 손쉽게 가능하다. 밥맛은 시골 가마솥에서 갓 지은 듯한 구수한 가마솥 밥맛을 내기 위해 압력 방식을 선택했으며 자동 온도 센서로 버튼만 누르면 1~4인분까지 자동으로 설정되어 완성된다. 또한 완성된 밥은 20분간 밥맛의 변질 없이 자동으로 보온이 되어 단초 손님, 예약 손님 등에 맞게 나갈 수 있다.

●●● 2019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의 특징

이번 신제품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는 초벌 기능을 탑재했다. 주식회사 가족에에프에스는 창립 후 10년 동안 밥 연구에 매진한 결과 초벌 기능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연구 개발했다. 초벌 기능은 솥에 여유만 있으면 적은 구수에서도 많은 양의 밥을 해내는 기능이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많은 구수의 기계를 사자니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며, 12구의 기계에서 점심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200그릇 정도 된다. 2019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의 초벌 기능은 손님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전에 초벌 기능으로 밥을 해놓고 손님이 방문했을 때 3분만 데우기 기능을 활용하면 처음에 한 밥과 같은 밥을 내놓을 수 있다. 11시에 한 밥을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1시에 데워도 처음한 밥맛이 그대로 살아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하면 인건비, 시간, 노동력

모두를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

●●●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 간편구입 방법



제품모델은 8구, 10구, 12구, 15구, 16구, 20구, 25구 등 7가지 모델로 구비돼 있으며 업소에 맞게 구매하시면 되고 구매전 전화로 시연 예약을 하면 전문 매니저가 방문해서 밥맛, 기계의 사용법, 시스템 이해, 구매 조건을 들어본 후 설치예약을 하면 된다. 시연 시 대폭 할인 있으며 설치 후 홍보를 위한 배너, 현수막, 온라인 홍보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런칭기념 전액할부, 36개월지리할부 등도 있으며 빌려 쓰는 렌탈시스템도 있다. 매출상승 보장! 마지막 도전으로 생각하고 솥밥 기계를 들여 놓고 솥밥에 맞게 메뉴도 업그레이드하고 나서 시작을 하였는데 점 차 손님이 늘어 처음에는 8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24구로 점심에 손님이 줄서 있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궁이는 희망입니다."라고 말했다.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의 1544-7871